

한국인 MBTI 조사결과 분석

■ MBTI 기본 성향 분석

- _ MBTI 4가지 속성별 특징과 국민전체 비중
- _ 20대, 상대적으로 국민전체와 반대 성향 많아
- _ 지역별, 별다른 차이 없이 국민전체와 유사
- _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국민전체와 비슷

■ MBTI 유형화 결과 분석

- _ 한국인, ISFJ 가장 많고, ESFJ, ISTJ, INFJ 순
- _ 4060세대 ISFJ 많고, 2030세대 ESFJ 많아
- _ 지역별, 이념별 MBTI 유형, 국민전체와 비슷

■ MBTI 조사결과 한계와 의미

- _ MBTI 등 결과, ‘신뢰한다’ 50% vs ‘신뢰안한다’ 50%
- _ 과학적 심리 분석 아닌 주관적 심리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1월 4일(금) ~ 11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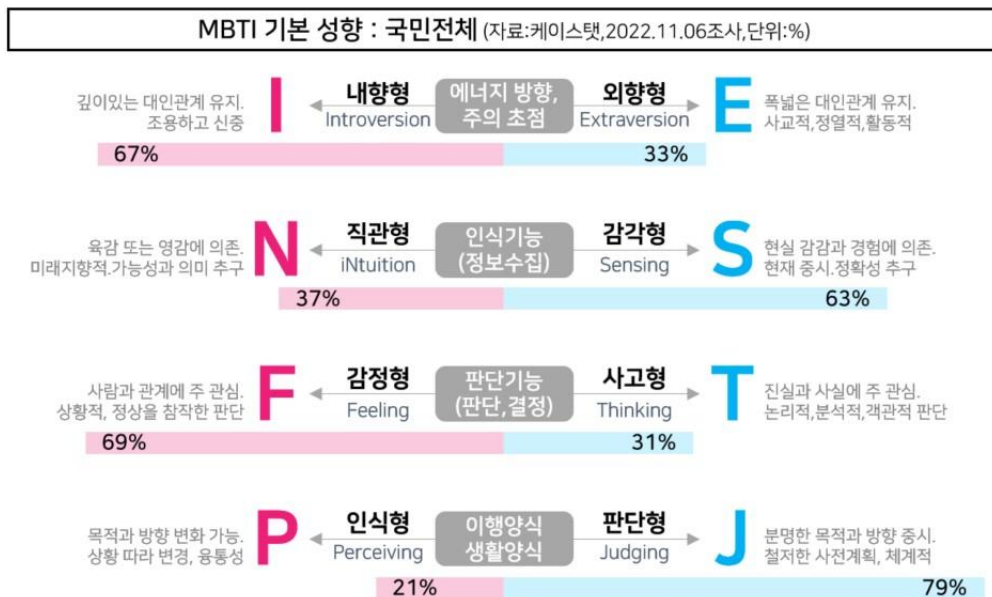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MBTI 기본 성향 분석

MBTI 4가지 속성별 특징과 국민전체 비중

- ‘MBTI’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기 기입식 심리검사 방법을 말함
 - MBTI 또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 기입식 문항을 통해 ‘심리 유형’을 알려주는 검사 방법임
- MBTI는 아래 그림처럼 4가지 기본 속성(‘에너지 방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생활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속성별로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내향적(I)’이고, ‘감각적(S)’이며, ‘감정형(F)’이면서 ‘판단형(J)’으로 나타남
 - 에너지 방향 : **내향형(I) 67%** vs 외향형(E) 33%
 - 인식기능(정보수집) : 직관형(N) 37% vs **감각형(S) 63%**
 - 판단기능(판단,결정) : **감정형(F) 69%** vs 사고형(T) 31%
 - 이행양식, 생활양식 : 인식형(P) 21% vs **판단형(J)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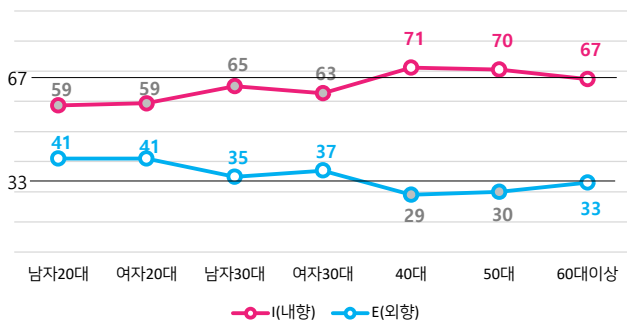
Kstat Point

- ☑ MBTI 조사결과 나타난 한국인의 모습은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이고, 감정형이면서 판단형’임
 - : 즉, 에너지 방향 면에서는 사교적·정열적·활동적이기보다, 조용하고 신중하며(내향형 I)
 - : 미래의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하며(감각형 S),
 - :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며(감정형 F),
 - :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보다, 사전계획을 중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판단형 J)
- ☑ MBTI 조사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한계가 있어,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 예를 들어 스스로의 이념성향에 대해 묻는 ‘주관적 이념성향과 유사한데, ‘주관적 이념성향과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한 ‘이념성향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
 - : 이번에 실시한 MBTI 조사 설문과 MBTI의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말미에 서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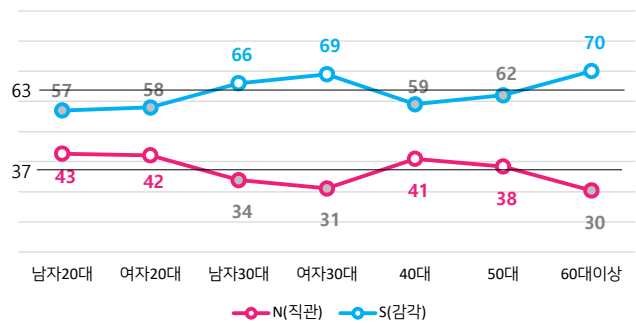
□ 20대, 상대적으로 국민전체와 반대 성향 많아

- 4가지 기본속성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대는 국민전체와 반대 성향이 많음
 - I(내향) vs E(외향) 속성 : 국민전체 내향형 우세 / 20대, 상대적으로 외향형(E) 비중이 높음
 - N(직관) vs S(감각) 속성 : 국민전체 감각형 우세 / 20대, 상대적으로 직관형(N) 비중 높음
 - P(인식) vs J(판단) 속성 : 국민전체 판단형 우세 / 20대, 상대적으로 인식형(P) 비중 높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F(감정) vs T(사고)’ 속성에서는 20대만의 차이가 아닌 2030세대간 남녀 차이가 두드러짐
 - 2030 여자는 국민전체보다 감정형(F) 비중이 높고, 남자는 사고형(T)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또한 4050세대는 대체로 속성별 수치가 비슷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4050세대는 비슷한 수치로 내향적(I)이고, 감각적(S)이며, 판단형(J)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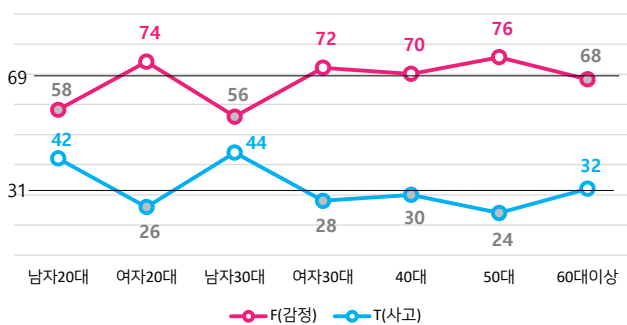
I(내향) vs E(외향)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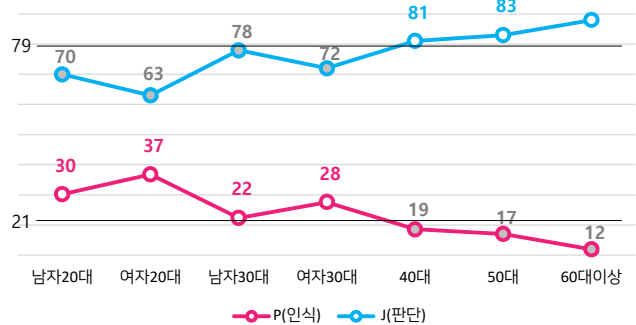
N(직관) vs S(감각)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F(감정) vs T(사고)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P(인식) vs J(판단)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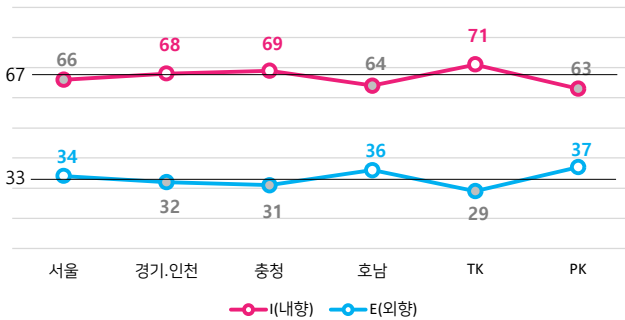
Kstat Point

- ☑ MBTI 조사결과 국민전체와 20대는 많은 속성에 걸쳐 다른 점이 특징적임
 - : 국민전체는 ‘내향적(I)’이고, ‘감각적(S)’이며, ‘판단형(J)’인데 비해
 - : 20대는 상대적으로 ‘외향적(E)’이고, ‘직관적(N)’이며, ‘인식형(P)’ 비중이 높음
 - : 여기에 국민전체적으로 ‘감정형(F)’이 많지만, 남자 20대는 ‘사고형(T)’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세대인식에서도 나타나는데, 20대를 바라보는 모든 세대의 시각은 20대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격차가 큼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37호 『한국인 ‘세대 의식’ 집중 분석』 참고)
- ☑ 한편, 우리 국민이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사고형 T)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감정형 F)하는 비중이 많은 점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보임
 - : 즉,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감성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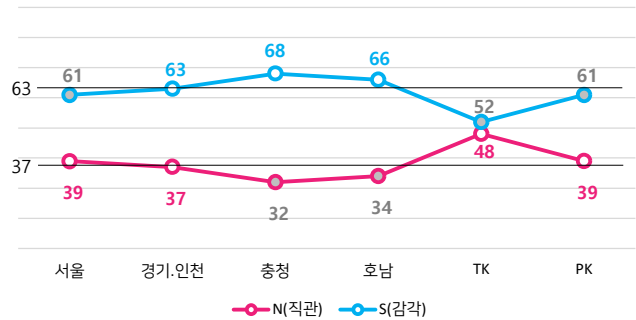
□ 지역별, 별다른 차이 없이 국민전체와 유사

- 4가지 기본속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별다른 차이 없이 국민전체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다만, 'N(직관) vs S(감각)' 속성에서 TK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N(직관) 비중이 높은 차이를 보임
 - 또한 F(감정) vs T(사고) 속성에서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감정형 비중이 특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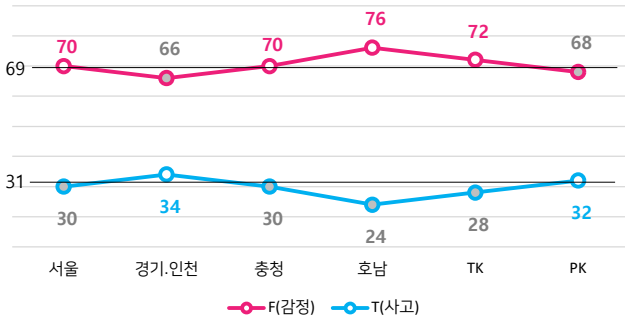
I(내향) vs E(외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렛,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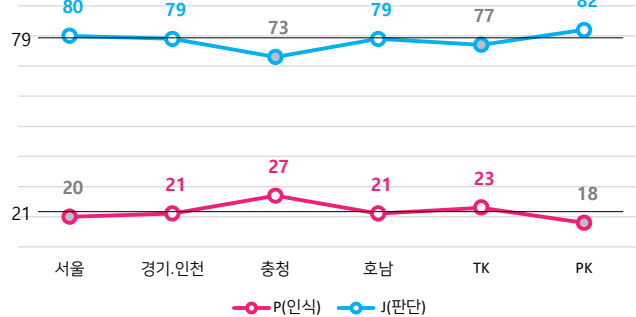
N(직관) vs S(감각) : 지역별 (자료:케이스렛,단위:%)



F(감정) vs T(사고) : 지역별 (자료:케이스렛,단위:%)



P(인식) vs J(판단) : 지역별 (자료:케이스렛,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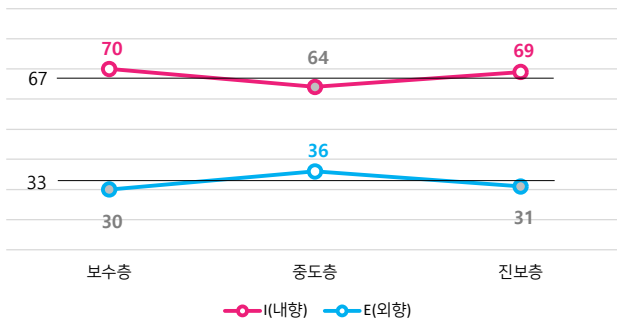
Kstat Point

- ☑ MBTI 기본속성에 대한 성/연령별 차이와 달리, 지역별로는 그 차이가 거의 없음
 - : 정치적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고방식 등 심리적 특성에서는 그 차이를 찾기 어려움
 - : 그만큼 지역별 정치적 차이는 오로지 '정치적 이유'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정치적 이유'는 과거 '지역감정'에 기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
- ☑ 앞서 성/연령별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도 별 차이 없이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사고형 T)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감정형 F)하는 비중이 많아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됨
- ☑ 한편, 'N(직관) vs S(감각)' 속성에서 TK지역만 독특하게 N(직관) 비중이 매우 높음
 - : 국민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은 감각형(S)은 현실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고,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함
 - : 이에 비해 직관형(N)은 육감 또는 영감에 의존하고, 미래지향적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는 유형인데, TK지역은 이런 특성이 강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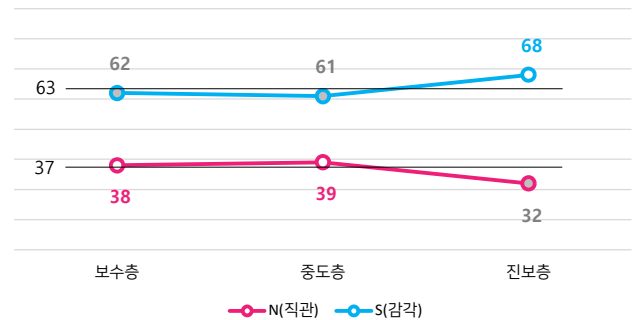
□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국민전체와 비슷

- 4가지 기본속성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큰 차이 없이 국민전체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 선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낮으면 회색 숫자로 표기함
- 상대적으로 보수층과 진보층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P(인식) vs J(판단)' 속성으로,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P(인식)형이 많음
 - 즉,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비중이 많음
- 또한 'N(직관) vs S(감각)' 속성도 보수층과 진보층 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진보층이 특히 S(감각)형이 많음
 - 그만큼 진보층이 현재를 중시하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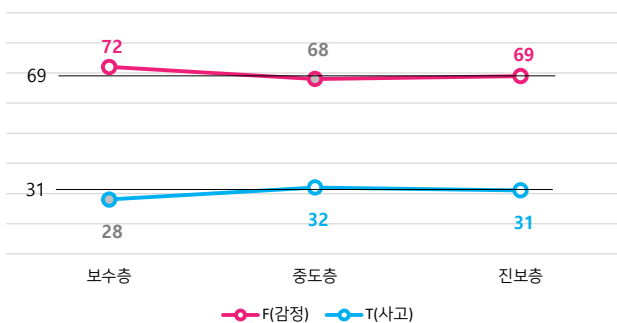
I(내향) vs E(외향)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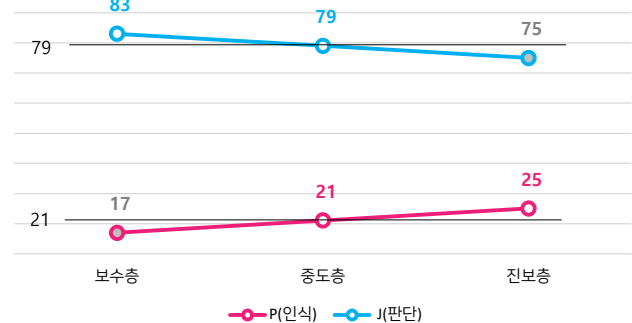
N(직관) vs S(감각)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F(감정) vs T(사고)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P(인식) vs J(판단) : 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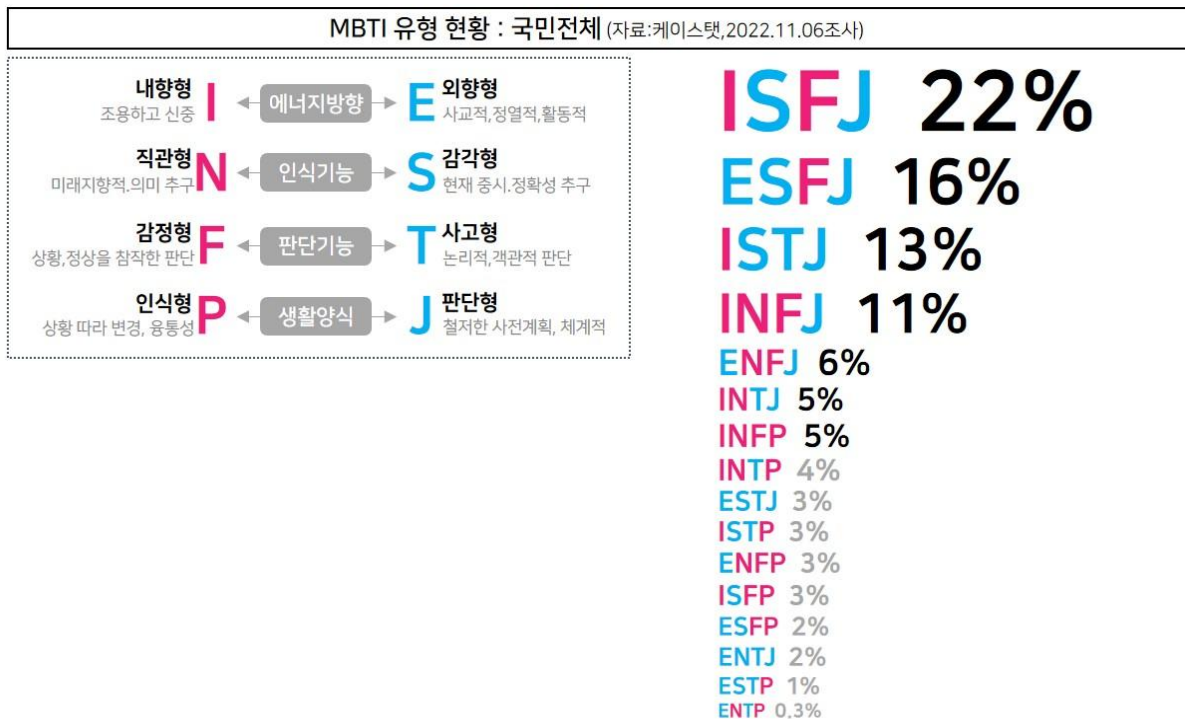
Kstat Point

- ☑ MBTI 기본속성에 대한 이념별 차이는 거의 없음
 - : 성/연령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적으로나 이념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 : 지역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념별 차이 역시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보수층과 진보층 간 차이가 엇보이는 지점은 'P(인식) vs J(판단)' 속성임
 - : 국민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은 판단형(J)은 철저한 사전계획을 중시하고 체계적임
 - : 이에 비해 인식형(P)은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을 갖는데,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사람의 비중이 높음

MBTI 유형화 결과 분석

□ 한국인, ISFJ 가장 많고, ESFJ, ISTJ, INFJ 순

- ‘MBTI’는 앞서의 4가지 속성별 구분에 따라 총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함
 -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등의 속성에 따라 대별되는 INFP와 ESTJ를 조합하면 모두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됨
- 조사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유형은 ISFJ로 22%를 차지함
 - 이를 읽는 방법은 ISFJ의 앞 글자 뜻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I(내향형), S(감각형), F(감정형), J(판단형)적 속성을 갖는 국민이 22%로 가장 많음
- 다음은 ESFJ(외향·감각·감정·판단형)가 16%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ISTJ(내향·감각·사고·판단형)가 13%, INFJ(내향·직관·감정·판단형) 11% 순임
 - 가장 낮은 비중은 ENTP(외향·직관·사고·인식형)로 0.3%이고, 다음은 ESTP(외향·감각·사고·인식형) 1%, ENTJ(외향·직관·사고·판단형) 2%, ESFP(외향·감각·감정·인식형) 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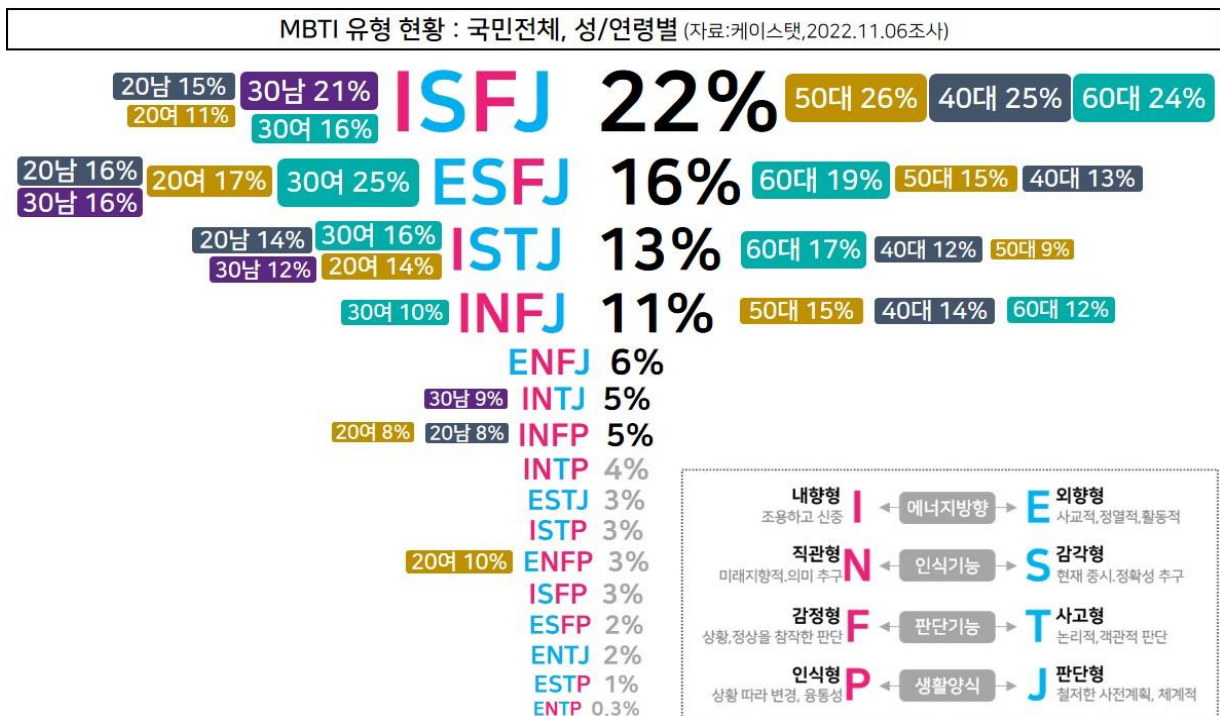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인 중에서는 ISFJ가 가장 많고(22%) 다음은 ESFJ(1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유형의 차이는 맨 앞글자임 : 즉, I(내향형)와 E(외향형)의 차이를 제외하면, 이들 모두 미래의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현재를 중시하면서 정확성을 추구하며(감각형 S),
 - : 논리적·분석적·객관적 판단보다, 상황과 정상을 참작해 판단하며(감정형 F),
 - :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보다, 사전계획을 중시하는 생활을 함(판단형 J)
- ☑ ISFJ와 ESFJ를 합하면 38%로, 한국인의 기본 유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임
- ☑ 한편, 1위 ISFJ와 비교해 3위 ISTJ는 세번째가 다르고(감정 F, 사고 T), 4위 INFJ는 두번째가 다름(직관 N, 감각 S)

□ 4060세대 ISFJ 많고, 2030세대 ESFJ 많아

- MBTI 16개 유형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ISFJ에 4060세대 다수가 위치해 있음
 - 40대 25%, 50대 26%, 60대 이상 24%가 ISFJ로 나타남
 - 아래 그림은 성/연령별 MBTI 상위 4개 유형을 기록한 것임
- 이에 비해 국민전체적으로 2위인 ESFJ에는 2030세대 다수가 위치함
 - 20대 남자 16%, 20대 여자 17%, 30대 남자 16%, 30대 여자 25%가 ESFJ에 속함
- 한편, 2030세대는 국민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은 유형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음
 - 국민전체적으로 5% 밖에 없는 INTJ에 30대 남자 9%가 속함
 - 역시 국민 5%인 INFP에 20대 남자·여자 공히 8%가 속함
 - ENFP는 국민전체적으로 3%에 불과한데, 20대 여자의 10%가 여기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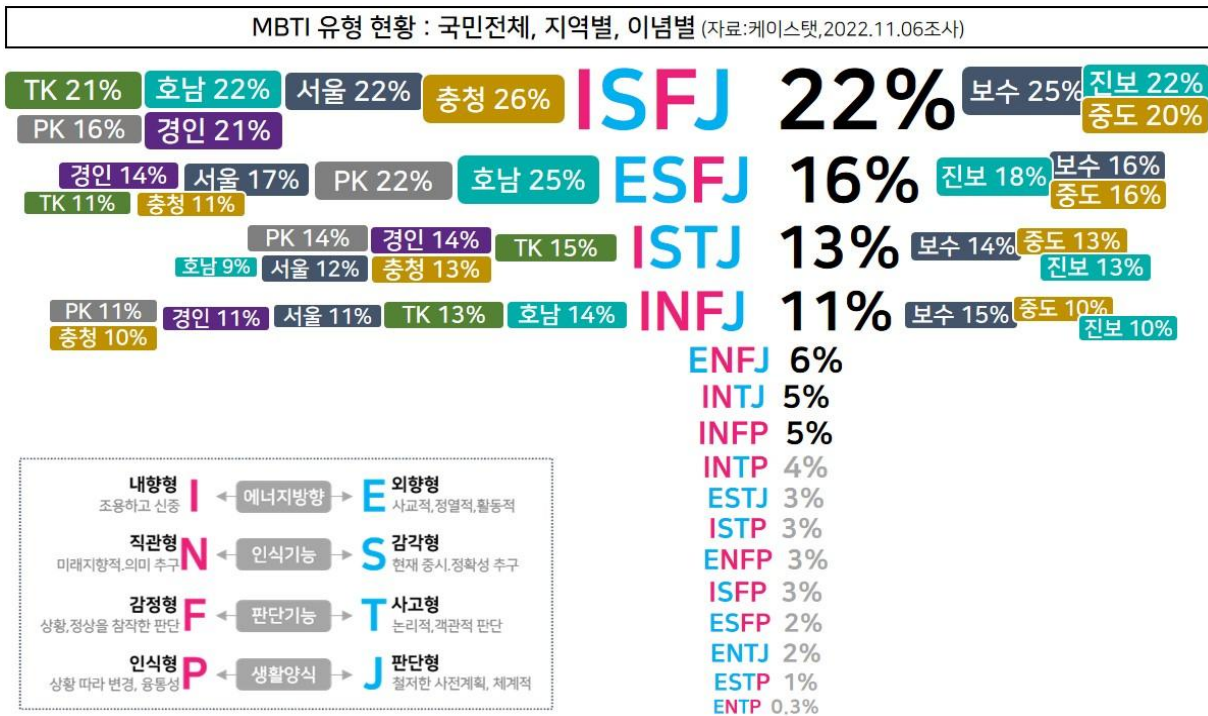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ISFJ(22%)는 주로 4060세대가 많이 위치하고, 다음으로 많은 ESFJ(16%)에는 주로 2030세대가 위치해 있음
 - : ISFJ와 ESFJ는 앞 글자, 즉 I(내향형)와 E(외향형)의 차이를 제외하면, 다른 속성은 모두 같음
 - : 즉, 4060세대는 내향형이 많고, 2030세대는 외향형이 많아 세대가 다수를 점하는 MBTI 유형이 달라짐
- ☑ 한편, 4060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국민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은 MBTI 유형에도 위치하는 특징을 보임
 - : 4060세대와 비교해 2030세대가 더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30대 여성 제외)

□ 지역별, 이념별 MBTI 유형, 국민전체와 비슷

- MBTI 16개 유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전체 유형별 비중과 유사함
 - 국민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ISFJ에 지역 대부분이 다수를 차지함
 - 서울 22%, 경기.인천 21%, 충청 26%, 호남 22%, TK 21%, PK 16% 등임
 - 아래 그림은 지역별, 이념별 MBTI 상위 4개 유형을 기록한 것임
- 상대적으로 호남과 PK는 ESFJ 비중이 다소 높음
 - 즉, 호남과 PK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향형(E)이 많음
- 이념별로는 국민전체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냄
 - 국민전체적으로 1위인 ISFJ에 보수(25%), 중도(20%), 진보(22%) 모두 가장 많이 위치함
 - 이하 국민전체적으로 2위, 3위, 4위에 보수·중도·진보 역시 비슷한 규모로 위치해 있음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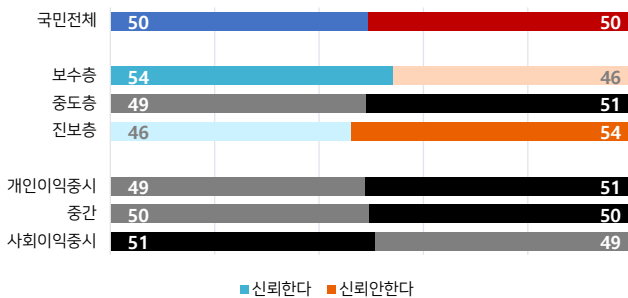
- ☑ 한국인 MBTI 유형을 종합하면, 지역이나 이념과는 별 다른 차이가 없고, 성/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짐
 - : 최근 각종 사회 여론 조사에서 이러한 특징이 강화되는 흐름임
- ☑ 향후, 한국사회의 각종 아젠다·이슈를 분석할 때 지역이나 이념별 접근보다 성/연령별 접근이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보임
 - : 정치적 이슈의 경우 여전히 지역과 이념별 대립에 대한 분석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용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MBTI 조사결과 한계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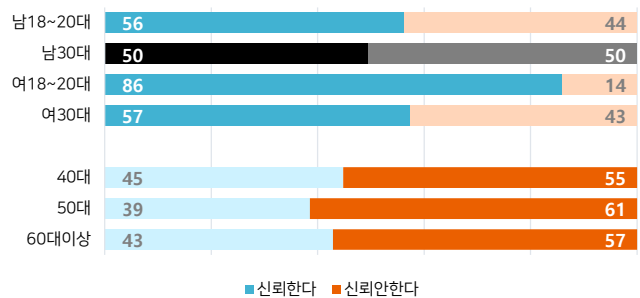
MBTI 등 결과, '신뢰한다' 50% vs '신뢰안한다' 50%

- 우리 국민들은 MBTI 등 성격유형 검사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공히 50%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평소 MBTI 등 성격유형 검사결과를 신뢰하세요, 신뢰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남자 20대, 여자 2030세대 △충청, 호남 △학생 등임
- '신뢰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4060세대 △TK, PK △자영업, 블루칼라 등임
- 한편, '신뢰한다'와 '신뢰안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중도층 △이익증시별 전체 △남자 30대 △서울, 경기.인천, 화이트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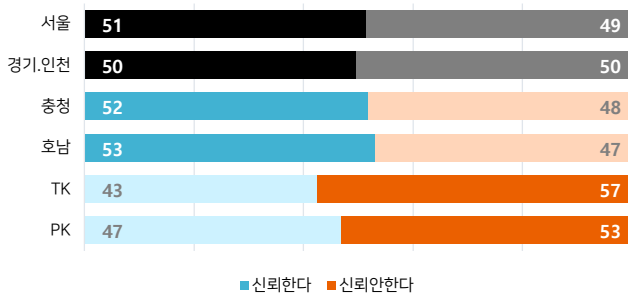
MBTI 등 성격유형 신뢰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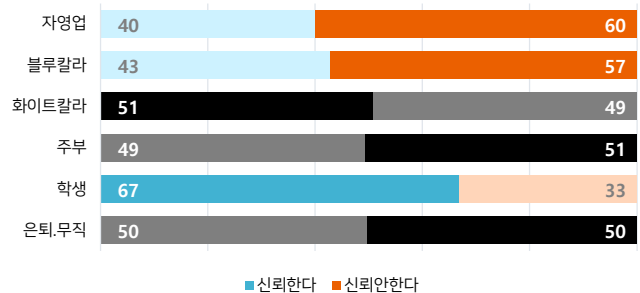
MBTI 등 성격유형 신뢰 여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MBTI 등 성격유형 신뢰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MBTI 등 성격유형 신뢰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Kstat Point

- ☑ 한국사회에서 MBTI는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4060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해 대중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 특히 여자 20대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86%로, 그 영향력이 절대적임
 - : MBTI에 대한 과학적 비판과 별개로 2030세대는 그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케이스탯의 이번 조사는 MBTI에 대한 과학적 적합성이나 신뢰성을 떠나, 국민들의 주관적 심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데 그 의미가 있음

□ 과학적 심리 분석 아닌 주관적 심리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

- ‘MBTI’는 1944년에 개발된 심리 분석 방법으로 대중적 관심을 끌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MBTI는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Katharine C. Briggs)와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 Myers)가 카를 융의 초기 분석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
 - 개발 이유는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후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남성 인력 부족으로 산업계에 여성이 진출하게 되자, 이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구별하여 각자 적합한 직무를 찾도록 할 목적이었음
 - 최초의 MBTI 매뉴얼은 1962년에 출판되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버클리)의 인격 및 사회연구 연구소장인 도널드 맥키년 등의 지원 속에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함
- 현재 MBTI 심리검사는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해 설명해 준다는 점을 장점 삼아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낮은 유효성과 낮은 신뢰성(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상황에 처할 때 다른 결과를 보여줌), 비독립적인 항목 측정(일부 이분법적 특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등이 대표적임
- 이번의 케이스탯 MBTI 조사 역시 MBTI 설문지와 분석 방법을 따랐기에, MBTI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심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심리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로는 의미가 있는 조사임
- 이번 조사에 사용된 MBTI 설문지는 20개 문항이며, 유형화 방법은 다음과 같음

다음은 성격유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지문은 공통 : ① 전혀 아니다, ② 대체로 아니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
| 01. 나는 여러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11. 나는 감정이 풍부한 편이다 |
| 02.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 12. 나는 작은 일에도 감동을 잘 느낀다 |
| 03. 나는 혼자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는다 | 13. 나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잘 흔들리는 편이다 |
| 04.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을 만나 떠들어야 풀린다 | 14. 나는 논리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을 좋아한다 |
| 05. 나는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 15. 나는 냉철한 사람보다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다 |
| 06. 나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 16. 나는 목표를 세우고 잘 실천하는 편이다 |
| 07. 나는 육감이나 직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17.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잘 지킨다 |
| 08. 나는 심오한 철학보다 명쾌한 과학을 좋아한다 | 18. 나는 공부나 일을 먼저 하고 논다 |
| 09.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편이다 | 19. 나는 개인적 사정보다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
| 10. 나는 전반적인 윤곽보다 세부적인 계획세우기를 좋아한다 | 20. 나는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난다 |

***점수화 및 유형과 방법** : 보기 문항이 기본 점수임 (① → 1점, ② → 2점, ③ → 3점, ④ → 4점)

- 01 ~ 05번 점수 합산 : 12점 이하 내향형 (I), 13점 이상 외향형 (E)
- 06 ~ 10번 점수 합산 : 12점 이하 직관형 (N), 13점 이상 감각형 (S)
- 11 ~ 15번 점수 합산 : 12점 이하 사고형 (T), 13점 이상 감정형 (F)
- 16 ~ 20번 점수 합산 : 12점 이하 인식형 (P), 13점 이상 판단형 (J)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3호는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MBTI 분석』이라는 주제로 11월 24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11월 사회지표는 10월 1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